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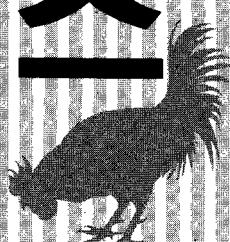
WORLD

POULTR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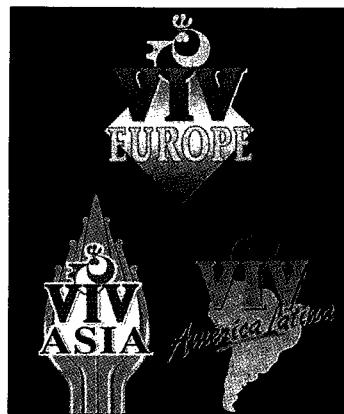


해외 양계 뉴스



VIV 박람회

'97년에 3개 대륙에서 개최



VIV 아시아 박람회가 오는 '97년 3월 12~14일에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5월 7~9일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11월 18~21일에는 네덜란드의 유트렉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축산(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VIV 박람회가 한 해에 3개 지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로 지난 '95년 개최되었던 VIV아시아 박람회에서는 12,565명이 참관했으며 한국은 태국(60.9%), 필리핀(5.7%), 말레이시아(4.3%), 인도네시아(3.8%), 대만(3.6%)에 이어 6번째(3.4%)로 참가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설문에 응한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NOC)

EU

10대 회사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물량 32%

표 1. EU지역의 10대 도계가공공장 현황

순위 1994	1995	도계가공공장	생산비율 (%)	닭고기 가공생산지역
1	1	Doux	8	독일, 프랑스, 스페인
2	2	Bourgoin	6	프랑스, 스페인
3	3	AIA Verona	4	이탈리아
4	4	Hillsdown	3	네덜란드, 영국
7	5	Lohmann-Wesjohann	2	독일
5	6	Nutreco	2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남아일랜드
8	7	Unicopa	2	프랑스
-	8	Scandinavian Poultry	2	덴마크, 스웨덴
9	9	Marshall Food Group	2	영국
10	10	LDC	1	프랑스

네덜란드의 축산물조사 보고서는 유럽연합(EU)에서 닭고기를 생산하는 10대회사들의 순위를 기록한 자료와 함께 이들 회사들이 생산하는 닭고기 생산량이 전체의 32%(95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1위를 차지한 회사는 전체물량의 8%를 생산하고 있는 Doux사로 생산지역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다. (PI)

나이지리아 계란 우수성 홍보

나이지리아에서 새로운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계란생산자협회(CEPAN)에서는 계란소비를 높이기 위해 신문, 라디오와 포스터 등을 통해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자 광고를 시작했다.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 쌉값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식품' 임을 내세우며 시작된 이 광고는 붉은 고기와 우유의 값이 반등된 것과 때를 같이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지리아의 1인당 계란 소비량은 60개로 시골에 사는 국민들은 도시보다 8개정도가 낮은 형편이다. 전체 인구중 도시에 거주하는 25%의 국민이 75-80%의 양계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40%의 계란 상인들이 행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홍보와 유통의 활성화를 기할 경우 양계산업의 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WP)

중국 새로 건설된 GP농장

중국 광주지역의 북쪽으로 70Km떨어진 곳

에 위치한 광동의 콩화지방에 새로운 GP농장이 들어섰다. 이는 미국의 Cobb사와 중국의 평산사가 합작한 것으로 중국에 Cobb의 GP농장이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농장은 50에이커 넓이에 중추사 2동, 성계사 4동이 건립되어 6개의 자동 급이시스템, 자동 집란시스템, 니플, 터널환기 시스템 등 모든 작업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일괄통제된다. 일년에 생산되어질 종자는 약 50만수로 10만수는 수이핑 육용종계농장에 보내질 것이고 나머지의 80%는 광동지방이나 그 외 지역으로 팔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규모가 확장될 경우 동남아 지역과 타 지역에 Cobb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PI)

스리랑카 위기에 처한 양계인들

양계농장들이 지난해 사료가격이 300%가 인상됨에 따라 경영의 압박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리랑카의 한 뉴스보도에 의하면 양계농가들은 살 터전을 잃어가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융자를 꺼리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사료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종계업자들은 생산비가 높다는 이유로 값싼 병아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계속적인 생산으로 과잉을 초래해 생산비선 보다 낮게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반면 육계농가들은 소비자들에게 팔 수 없을 정도의 닭고기 값이 형성되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PI)